釋讀口訣의 被動 表現* **

金星周***

요약

이 글은 고려시대 석독구결에서 피동이 어떻게 표현되었는가를 연구한 글이다. 사동은 자토석독구결에서 그에 해당하는 구결자가 있고, 점토석독구결에서도 그에 해당하는 점토가 있다. 그러나 피동을 표현하는 고유한 구결자나 점토는 없다.

이 글에서는 구결이 고전중국어의 원문을 우리말로 해석하는 과정에서 필요했다는 점에 착안하여 구결 원문에 사용된 가장 전형적이고 생산적인 고전중국어의 소위 '爲A所B' 피동문을 대상으로 석독구결에서 현토된 양상을 고찰하였다.

'爲A所B' 피동문은 화엄경 계열에서는 '-ㅣ尸入乙ン-'로 현토된다. 그러나 '-ㅣ尸入乙ン-' 구문은 '爲A所B' 피동문의 현토에는 물론 '되다'로 해석되는 구문에도 현토되므로 피동문을 위한 전형적인 구문은 아니다. 유가사지론 계열에서 구결 원문의 '爲A所B' 구문은 반드시 '爲ハ-' 구문으로 현

* 이 연구는 日本 文部科學省의 科學研究費 · 基盤研究B(2) 「國際的視点から見た日本語 · 朝鮮語における漢文訓讀に關する實証的研究(研究責任者:富山大學 小助川貞次 教授)」의 지원에 의한 것이다. 연구책임자이신 小助川貞次 선생님과 또 일본 훈점에 대한 개요와 실사 자료의 성격에 대해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신 숭실大 吳美寧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 이 글은 제3회 구결학회 국제학술회의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완한 것이다.

***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토되었다. 이는 화엄경 계열의 '-ㅣ尸入乙ン-' 구문과는 사뭇 다른 양상이다. '-ㅣ尸入乙ン-' 구문은 피동문은 물론 '되다' 구문에도 사용되었지만, '爲ハ-' 구문은 항상 피동문의 해석에만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爲ハ-' 구문을 피동문을 위한 고유한 형식인 것으로 보는 데에는 다소 유보적이다. 이 구문을 전형적인 피동문으로 보는 데에는 무엇보다도 이 구문이 유가사지론 계열에서만 쓰였다는 사실이 주목된다. 전형적인 구문으로 정착되었다면 어떤 구결 체계를 사용하는가에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사용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고려시대 국어에서 전형적인 피동문의 존재에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는 데에는 이 이외에도 피동문으로 사용된 다른 구문에서는 '爲ハ-' 구문이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과 15세기 국어에서 '爲A所B' 구문의 언해에 사용된 표현은 문법적으로 '爲ハ-' 구문보다는 '-ㅣ尸入乙ン-' 구문에 가깝다는 점도 그 방증이 된다.

한편 유가사지론 계열에는 피동과 관련되어 보이는 '爲一ㅣ-' 구문도 있는데, 이 구문은 그 예가 얼마 있지 않지만, 그 예들이 모두 지배하는 목적어 논항을 '障导'로 가진다는 사실이 주목된다. 이 구문은 '되다'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따라서 지금까지 연구된 결과로는 고려시대 국어의 피동문은 적어도 석독구결 자료에 기대어서는 확인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비록 유가사지론 계열의 '爲ハ-' 구문이 고전중국어의 전형적인 피동문인 '爲A所B' 구문의 해석에 專用된 것으로 보이지만 이러한 사실만으로 고려시대 국어에 피동 범주가 문법 범주로 존재했는지에 대해서는 결론을 유보할 수밖에 없다.

*핵심어: 사동, 피동, '爲A所B' 구문, '-ㅣ尸入乙ン-' 구문, '爲ハ-' 구문, '爲一ㅣ-' 구문, 전형적 피동문

1. 서론

사동은 자토석독구결과 점토석독구결에서 고유한 구결자와 점토가 있다. 그러나 피동은 그러한 구결자나 점토가 없다. 석독구결에서 피동을 표현하는 구결자나 점토가 없다면 고려시대 국어에서 피동은 사동과 달리 문법범주(grammatical categories)로서 정착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현대국어와 중세국어에서는 사동사와 함께 피동사가 확인되는 반면에 고려시대의 국어에서는 사동에 비해 피동은 문법적으로 정형화된 형식으로 표현되지 않았다. 이 글은 고려시대 국어의 문법적 연구가 가능할 정도로 많은 문법적 정보를 지니고 있는 석독구결자료를 대상으로 고려시대 국어의 피동이 어떤 식으로 표현되었는가를 밝히려는 데 목적이 있다.

이 글에서 검토하는 자료는 자토석독구결 자료인 『화엄경소』 권제35, 『화엄경』 권제14, 『구역인왕경』 권상 낙장 5매, 『합부금광명경』 권제3, 『유가사지론』 권제20 등과 점토석독구결 자료로서 『주본화엄경』 권제 6, 권제22, 권제36, 권제57, 『진본화엄경』 권제20, 『유가사지론』 권제5, 권제8(성암고서박물관 소장본) 등이다.

이 글은 크게 두 가지의 의문에서 출발하였다. 첫째는 고려시대 국어에서는 피동을 어떤 식으로 표현했는가이며, 둘째는 고려시대 국어에서 피동을 표현하는 형식이 있다면 이 형식의 문법적 지위는 어떠한 것인가이다.

이 글의 논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2장에서 고전중국어(Classical Chinese)에서 사용된 피동문 형식을 살펴보고 그 중 특히 '爲A所B' 피동문 형식이 석독구결의 피동문 해석 양상을 검토하기 위한 좋은 예라는 점을 알아본다. 3장과 4장에서 소위 '爲A所B' 피동문이 『화엄경』

계열[1]과 『유가사지론』 계열의 석독구결에서 어떻게 현토되었는가를 살핀다. 5장에서는 『유가사지론』 계열에서 이른바 '爲A所B' 피동문의 해석에 쓰인 '爲ㅅ-' 구문의 문법적 지위에 대한 문제를 다룬다. 6장에서는 '爲ㅅ-' 구문과 함께 『유가사지론』 계열에서 피동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이는 '爲ㅡㅣ-' 구문에 대해서 살펴본다. 7장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석독구결의 피동 표현에 대한 표현 양상을 정리하고, 석독구결에서 '爲A所B' 구문의 현토 양상이 보여주는 문법적 지위에 대해서 정리한다.

2. 고전중국어의 피동문

고전중국어(Classical Chinese)의 피동문은 기본적으로 현대중국어의 피동문과 일치한다.(許璧 1997: 426, 廖振佑 1979: 359) 고전중국어에서 피동문을 표시하는 대표적인 허사로는 '于(於), 爲, 見' 등이 있다. 중국어학에서 피동문의 출현 시기는 학자에 따라 견해가 약간 다르지만 늦어도 先秦時代 이후에는 피동문이 출현한 것으로 보는 것에는 학자들의 견해가 일치한다.

고전중국어의 피동문은 크게 다음의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동사 뒤에 '于(於)'가 피동문의 동작명사구 표지로 쓰이는 경우, 둘째, 피동문의 주어 뒤에서 '爲'가 피동문의 동작명사구 표지로 쓰이는 경우, 셋째, 동사 앞에서 '見, 被, 爲' 등이 와서 피동사를 구성하는 경우, 넷째 주어 뒤에 '爲'를 써서 피동문의 동작명사구를 표현하고

1) 이후로 『주본화엄경』 권제6, 권제14, 권제22, 권제36, 권제57, 『진본화엄경』 권제20, 『화엄경소』 권제35 등의 자료를 통칭할 때 『화엄경』 계열이라 하고, 『유가사지론』 권제5, 권제8, 권제20, 『합부금광명경』 권제3 등을 통칭할 때 『유가사지론』 계열이라 부른다.

동사 앞에 '所'를 써서 피동문을 구성하는 경우 등이다.

이 가운데 이른바 '爲A所B' 피동문은 주로 한대 이후부터 출현하는데(任炳權 1992:62-67), 이 형식은 고려시대의 석독구결 자료의 원문에서 피동문을 표현하는 보편적인 형식으로 쓰이고 있다. 고전중국어에 사용된 대표적인 피동문 형식의 예를 보이면 아래와 같다.[2)]

(1) 가. 高祖擊布時 爲流矢所中 (高祖가 淮南王 黥布를 칠 때 날아온 화살에 맞았다) <史記, 高祖本紀>

나. 衛太子爲江充所敗 (衛太子는 江充에게 敗했다) <漢書, 霍光傳>

(2) 가. 善戰者致人 而不善戰者致於人 (戰爭을 잘 하는 사람은 敵軍을 부리고, 잘하지 못하는 사람은 敵軍에 의해 부려진다) <孫子, 虛實>

나. 身客死於秦 爲天下笑 ((楚懷王은) 자신이 秦나라에서 客死하여 天下 사람들에 의해 비웃음거리가 되었다) <史記, 屈原賈生列傳>

다. 厚者被戮 薄者見疑 (事情이 重大한 이는 殺戮을 당하고 事情이 輕微한 이는 疑心을 받는다) <韓非子, 說難>

라. 靈公少侈 民不附 故爲弒易 (晉靈公은 젊어서 奢侈하여 百姓들이 服從하지 않아 그 때문에 弒害되어 交替되었다) <史記, 晉世家>

마. 昔者, 彌子瑕見愛於衛君 (예전에 彌子瑕는 衛王에 의해 寵愛를 받았다) <史記, 老莊申韓列傳>

(1가)에서 피동문의 주어는 '漢高祖'이며, 피동문의 동작명사구는 '流矢'이고, 피동사는 '中'이다. 이때 피동문의 동작명사구는 '爲'에 의해서 표지되며, 피동사는 '所'에 의해서 표지된다. (1나)에서도 '爲'에 의해서 동작명사구 '江充'이 표지되며, '所'에 의해서 피동사 '敗'가 표지된다.

2) 고전중국어의 피동문 예문들은 許璧(1997:431-432)과 廖振佑(1979:359-365)에서 재인용한 것임.

이와 같이 '爲A所B' 피동문은 동작명사구와 피동사를 표지하는 분명한 문법 형태가 존재한다.

그러나 (2)의 例들은 비록 고전중국어의 전형적인 피동문이기는 하나 피동문 표지가 '爲A所B' 구문에 비해 분명하지 못하여 동작명사구나 피동사 가운데 어느 하나만을 가리키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따라서 피동문의 형식적 특징은 '爲A所B' 피동문에 비해 뚜렷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2마)와 같이 피동사와 동작명사구가 모두 표시되는 피동문 형식이 있지만 이 형식은 석독구결의 원문에 사용되지 않았다.

한편 고전중국어는 종종 타동사 자체로 피동의 기능을 가지기도 한다.(廖振佑 1979:364) 그러나 이때에는 형식상 일반적인 능동문과 구별되지 않기 때문에 피동문임을 문맥에 의존해서 파악해야 한다. 따라서 원문을 중심으로 석독구결문의 피동문을 검토할 때에는 '爲A所B' 피동문이 동작명사구와 피동사를 모두 표지한다는 점과 가장 생산적으로 쓰이는 형식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고려시대 석독구결의 피동문 현토 양상을 고찰하기 위해서는 '爲A所B' 구문이 가장 적합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3. 『화엄경』 계열에서 '爲A所B' 구문의 현토 양상

'爲A所B' 구문에 대한 『화엄경』 계열의 석독구결문과 『유가사지론』 계열의 구결문의 현토 양상이 다르므로 둘로 나누어 살피는 것이 편리하다. 『화엄경』 계열의 '爲A所B' 구문은 '-ㅣ尸入乙ン-'로 현토된다. 그러나 '-ㅣ尸入乙ン-' 구문은 반드시 '爲A所B' 구문의 현토에만 쓰인 것은 아니다.

(3) 가. 時十 或刀 有ナ丨 人ㅣ 而灬 來ン氵ホ 白氵 言白ナ尸丁 {此}ㅣ

轉輪位ᄋᆞ十 王ㄱ 處ᄉᆞᄒᆞᅀᆞᄆᆞᆷ 已ᄋᆡ 久ᄀᆞᆮᄒᆞᄒᆞᄆᆞㅗ 我ㄱ 曾ᄒᆞ ᅀᆞᄀᆞᆫ 得ᄆᆞ 未ㅣᄉᆞᄂᆞᄆᆞ乙ᅀᆞᄀᆡ 惟ᄒᆞ 願ㅁᄆᆞᄉᆞㄱ 大王ㅣᄒᆞᄀᆞᄉᆞㄱ 之乙 捨ᄉᆞᄋᆞᄒᆞ 我ᄅᆞ十 與ᄉᆞㅁᄒᆞᄒᆞᄀᆞ 幷ᄆᆞ 及ㄴ 王ᄅᆞ 身ㄱ 我ᄅᆞ 臣僕ㅣᄆᆞ{爲}ᄉᆞ乙ᄉᆞㅁᄒᆞᄒᆞᄉᆞᄀᆞᄆᆞㅣ十 (그때 혹 있다, 사람이. 와서 사뢰기를, '이 轉輪王位에 왕은 處하시되 이미 오래 되셨으나 저는 조금도 얻지 못했습니다. 오직 원하건대, 大王께서는 그것을 버려서 저에게 주시며 아울러 왕의 몸도 저의 臣僕이 되소서' 할 경우에는) <화소35, 11:18-20>

나. 一切 衆生ᄅᆞ 善根乙 種植ㅅᄉᆞᄉᆞᄉᆞ 淨心ㄴ{之} 主ㅣᄆᆞ {爲}ᄉᆞ乙(ᄉᆞ)ᄒᆞ 一切 衆生ᄅᆞ 福德乙 發生ㅅᄉᆞᄉᆞ 最上(ㄴ) 良田ㅣᄆᆞ {爲}ᄉᆞ乙(ᄉᆞ)ᄒᆞ (爲一切衆生[23(-)]種植善根[41(·),13(/),42(/)]淨心[25(·)]之主[14(!),41(··),22(·)]爲一切衆生[23(-)]發生福德[41(·),13(/),42(/)]最上良田[14(!),41(··),22(·)] 一切 衆生의 善根을 심는 것과 깨끗한 마음의 主人이 되고 一切 衆生의 福德을 發生시키는 것과 最上의 복밭이 되고,) <화엄22, 17:01-02>

(4) 가. 林藪ᄋᆞ十 處ᄉᆞᄀᆞᄂᆞ 見(ᄋᆞᄀᆞㅣ十ᄀᆞ) 當(ㅅ) 願(ㅁᄆᆞᄉᆞㄱ) 衆生(ㄱ) 天人ᄅᆞ{之} 歎仰ㅅᄉᆞᄆᆞ 所ㅣᄆᆞ{爲}ᄉᆞᄂᆞᄉᆞᄉᆞㅎ{應}ㄴᄉᆞㅂᄉᆞ (숲에 處한 사람을 볼 때에는 반드시 願하건대 '衆生은 天人에게 歎仰 받으소서') <화엄14, 07:02>

나. {於}生死海ㄴ 中十(ᄉᆞ)ᄋᆞᄒᆞ 覺觀ㄴ 波濤ᄆᆞ {之}漂溺(ᄉᆞ)ㄱ 所ㅣᄆᆞ{爲}ᄉᆞ乙ᄉᆞㄱ(ㅣ) ㅣ(ᄉᆞ)ㅈᄂᆞㅣ (於生死海[25(·)]中[53(·),43(|)]爲覺觀[25(·)]波濤[45(·)]之所漂溺[12(·),14(¡),41(··),12(:),55(\·),55(/)] 生死海 中에서 覺觀의 波濤에 漂溺된다." 할 것이다.) <화엄36, 09:20-21>

(3)은 '-ㅣᄆᆞᄉᆞ乙ᄉᆞ-'가 현토되었으나 피동문이 아닌 일반동사 '되다'로 해석된다. (3가, 3나)는 각각 자토석독구결과 점토석독구결의 예인데, (3가)에서 밑줄 친 부분은 '王의 몸이 나의 臣僕이 되다'로 해석된다. (3나)의 밑줄 친 부분은 '菩薩은 淨心의 主人이 되고, 最上의 良田

이 되다'로 해석된다. 그런데 이들은 '-ㅣㄱㅅㄹㄴ-'로 해석되어 있으나 피동을 표현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4)는 (3)과 동일하게 '-ㅣㄱㅅㄹㄴ-'로 현토되어 있는데 고전중국어의 전형적인 피동문인 '爲A所B' 구문에 대응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4가, 4나)는 각각 자토석독구결과 점토석독구결의 예인데, (4가)의 밑줄 친 부분에서 피동문의 주어는 '衆生'이고, 동작명사구는 '天人'이며, 피동사는 '歎仰ㄴ-'이다. 따라서 (4가)의 밑줄 친 부분은 '衆生이 天人에게 歎仰 받다'로 해석된다. '爲A所B' 구문은 피동문의 동작명사구가 '爲' 뒤에, 피동사가 '所' 뒤에 옴으로 (4가)에서 피동문의 동작명사구로서 '天人'과 피동문의 원동사 '嘆仰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4나)의 밑줄 친 부분은 '凡夫가 生死海 中에서 覺觀의 波濤에 의해 漂溺되다'로 해석되는데, '爲A所B' 구문의 특성상 피동주 '凡夫', 피동문의 동작명사구 '覺觀의 波濤', 피동문의 원동사 '漂溺ㄴ-'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다. 해당 점토를 보면 피동문의 동작명사구 '覺觀의 波濤'에는 '45(·)(=ᄆᆞ)'이 현토되어 있고,[3] 피동문의 원동사 '漂溺ㄴ-'에는 '12(·), 14(i), 41(··), 12(:), 55(\·), 55(/)' 등이 현토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점토 '14(i)'는 구결자 'ㅣㄱ'에 해당되고, 점토 '41(··)'은 구결자 'ㅅㄹ'에 해당되며, '12(:)'은 'ㄴ-'를 포함하기 때문에 '爲A所B' 구문에 관한 한 자토석독구결과 점토석독구결은 정확한 일치를 보인다.

(3)과 (4)의 예를 통해서 『화엄경』 계열의 석독구결은 '되다' 구문과 '爲A所B' 구문을 구분하지 않고 '-ㅣㄱㅅㄹㄴ-'로 현토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것을 피동의 관점에서 보면, 고전중국어의 전형적인 피동문인 '爲A所B' 구문의 현토가 『화엄경』 계열의 석독구결에서는 일반동사 '되다' 구문과 구분되어 쓰이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은

3) '爲A所B' 구문의 동작명사구는 '43(·)(=ᄆᆞ)'이나 '23(-)(=ㅋ)'으로 현토된다. 전자는 주로 원인을 표현하는 [-animate] 명사구일 경우에, 후자는 피동문의 실질적인 동작주가 되는 [+animate] 명사구일 경우에 현토되는 경향이 있다.

『화엄경』 계열에서 '-ㅣ尸入乙ㄴ-' 구문이 비록 '爲A所B' 구문의 해석에 쓰였지만 이 구문은 피동을 표현하는 고유한 형식이 아님을 말해 준다.

4. 『유가사지론』 계열에서 '爲A所B' 구문의 현토 양상

『유가사지론』 계열에서도 '-ㅣ尸入乙ㄴ-' 구문이 쓰인다. 그러나 『유가사지론』 계열에 쓰이는 '-ㅣ尸入乙ㄴ-' 구문은 일반동사 '되다' 구문으로만 해석될 뿐, 『화엄경』 계열과 같이 '爲A所B' 구문의 해석에 쓰이지는 않는다.

(5) 가. 最大神通ㅋ十 得ㅋ亦 意乙 如ㅅ 未ㅅㄴㅏㄱ刀 **無明ㅣ {爲}因ㅣ尸入乙ㄴ**ㅇ 微妙秘密ㄴㅂㅌ七{之} 藏乙 修行ㅅ尸ㅁ 足 未ㅅㄴㅏㄱ刀 **無明ㅣ {爲}因ㅣ尸(入乙ㄴ)**ㅎ皿 是ㄱ 十地七 障ㅡㅅ亍ㅎ (最大神通에 대해서 능히 뜻과 같이 하지 못하는 것도 無明이 因이 되며, 微妙하고 秘密스러운 藏을 修行하되 충족하지 못함도 無明이 因이 되는 것이라 이는 十地의 障이라 하며) <금광 3, 08:06-08>

나. 思擇力ㅠ 攝ㅅ尸 不淨想七 中ㅋ十 當ㅅ 知ㅁㅣ **五法ㅣ 所對治ㅣ尸{爲}入乙ㄴ**ㅎㅣㄱㅜ (思擇力으로 攝受할 不淨想 中에서 반드시 알아야 한다. 五法이 所對治가 될 것이다.) <유가20, 09:20-21>

다. 經十 言X {如}ㅈㅣ **業ㄱ {爲}感生因ㅣ尸入乙(ㄴ)**ㅇ **愛 {爲}生起因ㅣ尸入乙x**ㅣ(ㄴ)ㅣ (如經[44(·)]言[33(··),11(·),51(·)]業[33(·)]爲感生因[+45(/),55(·)]愛爲生起因[+45(/),51~52(.·),+51(·)] 經에 言한 바와 같다. 業은 感生因이 되며 愛는 生起因이 된다고 하였다) <유가5, 12:22-23>

(5가,5나)는 자토석독구결의 예이고, (5다)는 점토석독구결의 예인데, 전자에서는 『화엄경』 계열의 자토석독구결과 같이 '-ㅣ尸入乙ㅅ-'가 현토되어 있으나 피동으로 해석되지 않고 일반동사 '되다'로 해석된다. 『유가사지론』 계열에서는 '-ㅣ尸入乙ㅅ-' 구문은 『화엄경』 계열과는 달리 '爲A所B' 구문의 현토에는 전혀 쓰이지 않는다.

『유가사지론』 계열에서 '爲A所B' 구문의 현토에는 '爲ㅎ-' 구문이 사용된다.

(6) 가. 是 {如}ᄒᆞ 精勤ᄒᆞ 善品乙 修ㅅᄉᆞᆫ 者ㄱ 略ᄒᆞ 四苦ᄅᆞ{之} 隨逐ㅅ尸 所乙 爲ㅎᄂᆞᆫᄃᆡ (이와 같이 부지런히 善品을 닦는 이는 四苦에 隨逐 當한다.) <유가20, 18:01-02>

나. 此 若 无x十ㄱ{者} 復 餘親ᄅᆞ{之} 守護(ㅅ)尸 所乙 爲ㅎᄒᆞ(ㅅ가) (此若无[44~54(ㅣ),33(·)]者復爲餘親[23(·)]之所守護[+15~25(-),34(·),32~42(·),35(·)] 이들이 만약 없을 때에는 또 남은 親戚의 守護를 받고 (하며) <유가08, 12:13-14>

(6가)는 자토석독구결의 예이고, (6나)는 점토석독구결의 예인데 어는 경우에나 원문의 '爲A所B' 구문에 대한 현토에는 '-ㅣ尸入乙ㅅ-' 구문이 아니라 '爲ㅎ-' 구문이 사용되었다. (6가)에서 피동주는 '是{如}ᄒᆞ 精勤ᄒᆞ 善品乙 修ㅅᄉᆞᆫ 者(이와 같이 善品을 부지런히 닦는 사람)'이며, 동작명사구는 '四苦'이고, 피동문의 원동사는 '隨逐ㅅ-'이다. 점토석독구결의 점토 '32~42(·)'은 자토석독구결의 구결자 'ㅎ'와 정확하게 일치한다.

'爲A所B' 構文의 대응 구결문인 『화엄경』 계열의 '-ㅣ尸入乙ㅅ-' 구문이나 『유가사지론』 계열의 '爲ㅎ-' 구문의 동작명사구 표지는 'ᄉᆞ' 또는 'ᄅᆞ'로 同一하다. 그러나 피동문의 원동사를 표현하는 部分에서는 양자가 다른 모습을 보인다. 『화엄경』 계열의 '-ㅣ尸入乙ㅅ-' 구문에서

는 '所'에 'ㄴㅁ'이 현토되고, '爲'에 'ㅅㄹㅅ-'가 현토되었으나, '爲ㅎ-' 구문에서는 '所'에 'ㄹ'이 현토되고 '爲'에 'ㅎ'가 현토되었다.

『유가사지론』 계열에서 '爲A所B' 구문은 항상 '爲ㅎ-' 구문으로만 현토되며 여기에는 例外가 없다. '爲ㅎ-' 構文의 독법에 대해서 알려진 바는 없다. '爲ㅎ'의 'ㅎ'는 原字를 '只'로 추정하고, 독음을 '기' 또는 'ㄱ'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나, '爲ㅎ'에 관한 한 '爲'가 읽혔는지 읽히지 않았는지 알 수 없으며, 읽혔을 경우에도 어떻게 읽혔는지 추정하기 어렵다. 단지 '爲ㅎ-'는 대격 'ㄹ'을 지배하고 있으므로 형식상 타동사임을 알 수 있을 뿐이다.

5. '-ㄴㅁㅅㄹㅅ-' 구문과 '爲ㅎ-' 구문의 문법적 위상

우리는 앞에서 고전중국어의 전형적인 피동문 형식인 '爲A所B' 구문이 『화엄경』 계열에서는 'ㄴㅁㅅㄹㅅ'로 현토되고 『유가사지론』 계열에서는 '爲ㅎ'로 현토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면 '-ㄴㅁㅅㄹㅅ-' 구문과 '爲ㅎ-' 구문은 피동을 표현하는 문법적 구성인가? 먼저 '-ㄴㅁㅅㄹㅅ-' 구문에 대해 논의하기로 하자.

3장에서 살펴보았듯이 '-ㄴㅁㅅㄹㅅ-' 구문은 '爲A所B' 구문의 해석에도 쓰이지만 '되다'로 해석되는 일반동사 구문에도 쓰이므로 '-ㄴㅁㅅㄹㅅ-' 구문을 피동을 표현하는 문법적인 구문으로 볼 수 없다. 일반적으로 어떤 구성이 문법적 구성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문법범주(grammatical categories)를 표현해야 하며 동시에 고유한 형식이 있어야 한다.[4] 그러나 '-ㄴㅁㅅㄹㅅ-' 구문은 피동 범주를 표현하기 위한

4) 물론 여기에서도 원형이론(prototype theory)의 범주관이 지배하기 때문에 양항적(binary)으로 문법범주를 논할 수는 없다. 원형이론의 범주관에 대해서는 Taylor(1989)를 참조.

고유한 형식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동을 표현하는 문법적인 구성으로 볼 수 없고, 고전중국어의 전형적인 피동문인 '爲A所B' 구문의 해석에 '-ㅣ尸ㅅ乙ㅅ-' 구문이 쓰인 것으로 파악해야 한다.

이제 '爲ㅎ-' 구문의 문법적 위상에 대해 알아보자. '爲ㅎ-' 구문은 여러 가지 면에서 '-ㅣ尸ㅅ乙ㅅ-' 구문과는 다른 모습을 보인다. 『화엄경』 계열에서 '-ㅣ尸ㅅ乙ㅅ-' 구문은 '爲A所B' 구문의 현토에도 쓰였지만 일반동사 '되다' 구문의 현토에도 쓰였다. 그러나 『유가사지론』 계열에서는 '-ㅣ尸ㅅ乙ㅅ-' 구문은 '되다'로 해석되며, '爲ㅎ-' 구문은 '爲A所B' 구문의 해석에 사용된 점이 다르다.

그렇다면 『유가사지론』 계열에서 '爲A所B' 구문의 해석에 사용되는 '爲ㅎ-' 구문은 피동을 표현하는 문법적 구성으로 볼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대답을 단정적으로 하기는 어렵지만, '爲ㅎ-' 구문이 고전중국어의 전형적인 피동문 형식인 소위 '爲A所B' 구문의 해석에 쓰인 점을 근거로 고려시대 국어에도 피동이 전형적인 문법점주를 이루고 있었다는 결론에 이르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7) 謂ㄱ {於}四沙門果ㅋ 能ᄃᆞ 隨ㅅ 證ㅅ尸 所乙 {有}ㅂ尸 未ㅎㅅㄱㅅ ᄆᆞᆷ 故ㅅ 猶ㅣ 惡趣苦ㄹ 隨逐ㅅ尸 所乙 爲ㅎᄃᆞ 體ㅣ 是ㄱ 生老病死ㅅ 法ㅣㄱㅅᄆᆞᆷ 故ㅅ 內壞苦ㄹ{之} 隨逐ㅅ尸 所乙 爲ㅎᄃᆞ 一切 所愛離別ㅅ 法ㅣㄱㅅᄆᆞᆷ 故ㅅ 愛壞苦ㄹ{之} 隨逐ㅅ尸 所乙 爲ㅎᄃᆞ 自業ㄹ 作ㅅㄱ 所ㅣㄱㅅᄆᆞᆷ 故ㅅ 一切 苦因ㄹ{之} 隨逐ㅅ尸 所ㅣ (말하자면 四沙門果에 대해 能히 따라 證할 것을 가지지 않은 까닭으로 오히려 惡趣苦에 隨逐되며 體가 이것은 生老病死의 法인 까닭으로 內壞苦에 隨逐되며 一切 所愛離別의 法인 까닭으로 愛壞苦에 隨逐되며 自業이 지은 것이므로 一切 苦因에 隨逐된다.) <유가20, 18:02-07>

(7)의 구결문에는 네 개의 피동문이 있는데, 앞의 세 개는 '爲A所B'

구문으로 되어 있고, 마지막의 하나는 'A所B' 구문으로 되어 있다. 앞에 있는 세 개의 피동문의 동작명사구는 각각 '惡趣苦, 內壞苦, 愛壞苦'인데, 마지막 피동문의 동작명사구는 '一切 苦因'이므로 앞에 있는 세 개의 동작명사구를 포괄하는 동작명사구이다. (7)의 현토 양상을 살펴보면 고전중국어 원문에서 '爲'가 있을 경우에는 '爲ㅅ'로 현토되지만 '爲'가 없는 경우에는 피동문의 동작명사구와 피동문의 원동사에는 '爲A所B' 구문의 경우와 동일하게 현토되어 있으나, '爲ㅅ-' 구문과는 달리 '所'에는 'ㅢㅣ'가 현토되어 있다. 이것은 적어도 '爲ㅅ-' 구문에서 피동 표현을 담당하는 부분이 '爲ㅅ-'에 있다고 보기보다는 '동작명사구 + 隨逐ノ尸 所'에 이르는 구성에서 결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爲ㅅ-' 구문에서 피동을 담당하는 부분이 '爲ㅅ-' 에 있지 않다는 사실은 그만큼 이 구문이 문법적인 구성일 가능성이 희박한 것임을 말해 준다.

15세기 언해문에서도 '爲A所B' 구문을 흔히 볼 수 있는데, '爲A所B' 구문의 언해 양상은 '爲ㅅ-' 구문에 가깝다기보다는 '-ㅢ尸ㅅ乙ㄴ-' 구문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8) 가. 내 一定히 반ᄃᆞ기 부톄 ᄃᆞ외야 <u>天人의 恭敬호미 ᄃᆞ외야</u> (我定當作佛ᄒᆞ야 爲天人所敬ᄒᆞ며) <法華經諺解 02:26>

나. 一切ㅅ 사ᄅᆞ미 다 五眼ᄋᆞᆯ 뒷건마ᄅᆞᆫ <u>迷惑의 두푸미 ᄃᆞ외야</u> (一切人이 盡有五眼컨마ᄅᆞᆫ 爲迷所覆ᄒᆞ야) <金剛經諺解 118>

(8가)와 (8나)는 각각 『법화경언해』와 『금강경언해』의 예인데, '爲A所B' 구문이 각각 '天人의 恭敬호미 ᄃᆞ외야'와 '迷惑의 두푸미 ᄃᆞ외야'로 언해되어 있다. 이 형식은 피동문의 원동사를 명사형 '-옴/움'으로 연결하고 동사 'ᄃᆞ외-'가 연결되어 있어, '所'에 대격 '乙'이 연결되고 '爲'에는 'ㅅ'가 현토된 '爲ㅅ-' 구문보다는 '所'에 'ㅢ尸'이 현토되고,

'爲'는 'ㅅ乙ㄴ-'가 현토된 '-ㅣ尸ㅅ乙ㄴ-' 구문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문법적 구성으로서의 '爲ㅅ-' 구문의 지위와 15세기 언해문에서의 언해 양상을 직접적으로 관련시키기에는 시대차가 너무 큰 것이 사실이지만, 후대의 15세기 국어에서도 '爲A所B' 구문의 번역에 전형적인 피동문이 사용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고려시대 당시에도 피동문의 번역에 사용된 '爲ㅅ-' 구문의 문법적 지위가 그다지 확고하지는 않았다는 방증은 될 수 있다.

6. '爲ㅡㅣ-' 구문

『유가사지론』 계열에는 '爲ㅅ-' 구문 이외에도 피동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는 '爲ㅡㅣ-' 구문이 있다. 먼저 예문을 보이면 아래와 같다.

(9) 가. 此 障导乙 由ᄒᆞ {於}一切 種ᄒᆞ十 出離 能 不ㅅᄂᆞᆫᄀᆞ 設ㅡㅅ 得ᄒᆞ 出家ᄂᆞᆫᄒᆞᄆᆞ 此 尋思ᄆᆞ{之} 擾動ᄂᆞᆫᄀᆞ 所乙 由ᄒᆞ 障导乙 爲ㅡㅣ尸ㅅᄆᆞ 故ᄂᆞ 喜樂乙 生尸 不ᄒᆞᄉᆞᄒᆞᄀᆞㅗ (이 障碍로써 一切의 種에서 능히 出離할 수 없으며 設使 능히 出家하더라도 이 尋思에 의해 擾動됨을 말미암아 障导가 되는 까닭으로 喜樂을 내지 못한다.) <유가20, 08:08-10>

나. 又 此 二十種ㄴ 所對治法ᄀᆞ 略ㅁᄀᆞ 四相乙 由ᄒᆞ {於}生起ᄂᆞ尸 所ㄴ 三摩地ㄴ 中ᄒᆞ十 堪能ᄒᆞ 障乙 爲ㅡㅣᄂᆞᄒᆞᄉᆞㄴㅣ (또 이 스무 가지의 所對治法은 간략하게 말하면 四相을 말미암아 生起하는 三摩地 中에서 능히 障碍가 됨에 틀림없다.) <유가20, 14:17-19>

다. 卽 此 二 雜染品乙 斷ᄂᆞ{爲}ㅅ 善說法ㅗ 毘柰耶ㅗᄂᆞᄉᆞ十 入ᄂᆞㅂㄴ 時ㅗ十 能ᄀᆞ 障导乙 爲ㅡㅣᄉᆞㄴ 有ᄂᆞᆫᄀᆞ 所ㄴ 煩惱ㅣᄀᆞ 此 諸煩惱ᄀᆞ 能ᄀᆞ 隨眠ㅣ尸{爲}ㅅ乙ᄂᆞᄒᆞ 深遠ᄒᆞ 心ᄒᆞ十 入ᄂᆞᄒᆞ 又 能

ᄀᆞ 種種ᄂᆡ 諸 苦ᄅᆞ 發生ᄒᆞᄆᆞᄉᆞᄆᆞᄒᆞᆫᄃᆞ 若 能ᄀᆞ {於}此ᄅᆞᄒᆞ 餘ᄇᆞᆫ 无ᄒᆞ 永斷ᄉᆞᄆᆞᄒᆞᆫᄅᆞ 名ᄒᆞ 極淨道果ᄅᆞ {爲}證得ᄉᆞᄋᆞᄀᆞᄃᆞᄂᆞᄒᆞᆫᄃᆡ (곧 이 두 雜染品을 끊고자 善說法이니 毘柰耶(계율)니 하는 것에 들 때 能히 障碍가 되는 所有한 煩惱인 이 모든 煩惱는 능히 隨眠이 되어 깊고 멀리 마음에 들어가고 또 능히 갖가지 모든 苦를 發生하고 할 것이다. 만약 여기에서 남김없이 永斷하면 이것을 일러 極淨道果를 證得한다 할 것이다.) <유가20, 30:07-11>

(9)는 자토석독구결 『유가사지론』 권제20의 예문인데, '爲ㅡㅐ'가 모두 '障导'를 목적 논항으로 취하고 있음이 주목된다. 현대국어로 해석하면 '障碍가 되다' 정도이다. 그러므로 '爲ㅡㅐ-' 구문은 피동과 관련된다기보다는 '되다' 구문과 관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5] 한편 동일한 의미로 보이는 문맥에서 '-ㅐᄆᆞᄒᆞᆫᄅᆞᄉᆞᆫ-' 구문으로 현토된 예가 보인다.

(10) 가. 五 卽ᄀᆞ 是 {如}ᄉᆞᄂᆞᆫᄀᆞ 方便作意ᄅᆞ 依ᄉᆞ {於}法ᄉᆞᄒᆞ 精勤ᄉᆞᄋᆞᄉᆞ 論議決擇ᄉᆞᄒᆞ {於}立破門ᄉᆞᄒᆞ 多ㅐ 言論ᄅᆞ 生ㅐᄉᆞ 相續不捨ᄉᆞᄒᆞᄂᆞᄆᆞᄒᆞᆫᄀᆞ 此ᄀᆞ {於}寂靜ᄒᆞ 正思惟ᄉᆞᄉᆞᄆᆞ 時ㅓᄒᆞ 能ᄀᆞ <u>障导ㅐᄆᆞᄒᆞᆫ{爲}ᄉᆞᄅᆞᄉᆞᆫᄆᆞᄒᆞᆫᄉᆞᄏᆞ</u> (다섯 째 곧 이와 같은 方便作意에 依支하여 法에 대해 精勤하여서 論議決擇하고 立破門에 대해 言論을

5) 익명의 심사자로부터 이 글이 지나치게 문맥적 의미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받았다. 예를 들어 '障导ㄹ 爲ㅡㅐ-' 구문에서 '障导를 받다' 정도의 의미를 추출하는 것은 석독구결자 중에서도 그 기능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대격 표지 'ㄹ'의 기능을 무시한 판단이라는 것이다. 필자는 이 글이 문맥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특히 '爲ㅡㅐ-' 구문과 같이 구결자 각각에 대해서 거의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필자가 '爲ㅡㅐ-' 구문을 이와 같이 처리하게 된 근거는 '-ㅐᄆᆞᄒᆞᆫᄅᆞᄉᆞᆫ-' 구문의 존재 때문이다. 이 구문도 통사적으로는 대격 표지 'ㄹ'을 가진 타동 구문임이 분명하지만 현대국어의 '되다' 정도의 의미로 파악하고 있다.

많이 내어 相續不捨하고 하면 이는 寂靜하게 正思惟하는 때에 能히 障碍가 될 것이며) <유가20, 12:07-10>

나. 又 二法 有ㅌㅣ (於)現觀ㄹ 修ㅅ수ㅓ 極 障导ㅢㄲ{爲}ㅅㄹㅅ거ㅗ (또 두 가지 法이 있다.現觀을 닦는 데 至極히 障碍가 될 것이다.) <유가20, 24:10>

(10)의 '障导ㅢㄲ{爲}ㅅㄹㅅ-'는 '장애가 되다'의 의미로서 (9)의 '障导ㄹ 爲ㅡㅢ-'와 유사한 문맥으로 보인다. 의미적인 측면에서 볼 때 '障导ㅢㄲㅅㄹㅅ-'와 '障导ㄹ 爲ㅡㅢ-'는 동일한 의미를 지녔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따라서 자토석독구결 『유가사지론』 권제20에서 보이는 '爲ㅡㅢ-' 구문은 피동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보다는 『유가사지론』 계열에서 일반동사 '되다'의 해석에 사용되는 '-ㅢㄲㅅㄹㅅ-' 구문과 유사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7. 結論

지금까지 자토석독구결 자료 『화엄경소』 권제35, 『화엄경』 권제14, 『구역인왕경』 권상 낙장 5매, 『합부금광명경』 권제3, 『유가사지론』 권제20과 점토석독구결 자료 『주본화엄경』 권제6, 권제22, 권제36, 권제57, 『진본화엄경』 卷第20, 『유가사지론』 권제5, 권제8(성암고서박물관 소장본)을 대상으로 석독구결의 피동 표현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상의 논의를 요약함으로써 결론을 대신한다.

첫째 사동은 자토구결에서 'ㅅ'나 'ㅢ'로 현토되고, 점토구결에서 '42(·), 24(·), 24(|)'으로 현토되는데 비해, 고려시대 석독구결에서 피동에 대응되는 구결점이나 점토는 없다.

둘째, 고전중국어의 전형적인 피동문 형식인 '爲A所B' 구문은 고려시대의 석독구결의 원문에서도 가장 생산적으로 쓰인 피동문 형식이며, 이 형식은 피동문의 동작명사구와 원동사의 식별이 용이하기 때문에 피동문의 현토 양상을 살피는데 유효한 구문이다.

셋째, 이른바 '爲A所B' 구문의 석독구결의 현토 양상은 『화엄경』 계열에서는 '-ㅣ尸入乙ン-' 구문이 쓰였고, 『유가사지론』 계열에서는 '爲ハ-' 구문이 쓰였다.

넷째, 『화엄경』 계열에서 '爲A所B' 구문의 현토에 쓰인 '-ㅣ尸入乙ン-' 구문은 피동 표현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되다' 구문에도 쓰이므로 피동문을 위한 고유한 형식이라 볼 수 없다.

넷째, 『유가사지론』에서는 '爲A所B' 구문이 '-ㅣ尸入乙ン-' 구문으로 쓰이지 않고 반드시 '爲ハ-' 구문으로 해석되므로, 『화엄경』 계열의 '-ㅣ尸入乙ン-' 구문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다섯째 『유가사지론』 계열에서는 『화엄경』 계열과는 달리 '爲A所B' 구문의 해석에 '되다'의 의미로 해석되는 '-ㅣ尸入乙ン-' 구문과는 달리 '爲ハ-' 구문이 전적으로 쓰였다고 하더라도 이 점을 근거로 고려시대 국어에 피동을 전적으로 담당하는 표현이 있었다는 결론은 유보적이다. '爲ハ-' 구문이 피동 표현에 쓰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유가사지론』 계열에만 보이는 현상이지 고려시대 국어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여섯째, 『유가사지론』 계열에서 피동문과 관련되는 것으로 보이는 또 하나의 구문인 '爲一ㅣ-' 구문은 '-ㅣ尸入乙ン-' 구문과 함께 '되다'로 해석되는 점과 특정한 명사구를 취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爲一ㅣ-' 전형적인 피동문으로 보기에는 역시 다소 무리가 있다.

지금까지 고려시대 석독구결에서 피동에 대응하는 구결자와 구결점이 없는 점과, 고대중국어의 전형적인 피동문이면서 고려시대 석독구결의 원문에서 피동문으로 가장 생산적으로 쓰인 '爲A所B' 구문의 현

토 양상을 고려할 때, 고려시대 국어에서 피동은 문법 범주로서 정착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 글은 주로 고전중국어의 이른바 '爲A所B' 구문의 현토 방식을 중심으로 고려시대 구결의 피동 표현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러나 본문에도 지적했다시피 고전중국어에는 피동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이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못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글을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문헌

강명순(2001), 「국어 사·피동법의 역사적 변화 방향 및 그 원인에 관한 새로운 고찰」, 『한글』 254, 한글학회, 119-160.

高正儀(2004), 「口訣 硏究의 現況과 課題」, 『口訣硏究』 12, 口訣學會, 5-44.

金星周(2005), 「'爲'에 懸吐되는 口訣字와 機能」, 『口訣硏究』 15, 口訣學會, 29-52.

남경란(2003), 「<대방광불화엄경소 (권35)>에 대하여」, 『배달말』 32, 배달말학회, 137-159.

남권희(2002), 『高麗時代 記錄文化 硏究』, 淸州古印刷博物館.

박진호(1998), 「고대 국어 문법」, 『국어의 시대별 변천 연구 3 -고대 국어-』, 국립국어연구원, 121-205.

박진호(2004), 「주본 『화엄경』 권 제36 점토구결의 해독 -자토구결과의 대응을 중심으로-」, 『구결연구』 11, 구결학회, 215-231.

서민욱(2005), 「『瑜伽師地論』 卷5·8의 點吐口訣 硏究」, 가톨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상억(1970/1999), 『국어의 사동·피동 구문 연구』, 서울: 집문당.

이 용(2004), 「점토구결의 연구 현황」, 『한국문화』 34, 서울대 한국문화연구소, 273-305.

이은규(2003), 「『대방광불화엄경소(권35)』 석독 입겿문의 동사 '삼-'에 대하여」, 『어문학』 81, 한국어문학회, 165-188.

이향천(1991), 「피동의 의미와 기능」,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任炳權(1992), 「古代 中國語의 被動文 硏究」, 成均館大學校 博士學位論文.
장경준(2005), 「『유가사지론』 점토석독구결 해독 방법 연구－권5,8의 단점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장윤희(2004), 「석독구결 및 그 자료의 개관」, 『口訣硏究』 12, 口訣學會, 47-80.
許 璧(1997), 『中國古代語法』, 서울: 신아사.
廖振佑 편저(1979), 『古代漢語特殊語法』, 呼和浩特: 內蒙古人民出版社, 번역: 이종한(2001), 『한문 문법의 분석적 이해』, 대구: 계명대학교 출판부.
Li, C.N. & S.A. Thompson(1976), *Mandarin Chinese: A Functional Reference Grammar*, Berkeley and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번역: 『표준중국어문법』, 박정구 외(1989), 서울: 한울아카데미.
Pulleyblank, E.G.(1995), *Outline of Classical Chinese Grammar*, Vancouver: UBC Press. 번역: 양세욱(2005), 『고전 중국어 문법 강의』, 서울: 궁리.
Siewierska, A.(1984), The Passive: A Comparative Linguistic Analysis, London: Croom Helm.

<辭典>
Asher ed.(1994), *The Encyclopedia of Language and Linguistics*, Seoul: Pergamon Press.
大漢和辭典(1959), 東京: 大修館書店.
漢語大詞典(1968), 上海: 上海辭書出版社.

〔411-839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34 에이스 10차Ⓐ 102-1002〕
E-mail: sutra01@hotmail.com
접수일자: 2005. 12. 19.
게재결정: 2006. 01. 25.

Passive Expressions in Seokdok-Kugyol(釋讀口訣)

Kim, Seong-ju

It is in Seokdok-Kugyol(釋讀口訣; henceforth, SK) that a causative markers are a kugyolja(口訣字) *hai*(ᄒᆞ) or a jeomto(點吐) '24(·)/42(·)'. There was, however, not any passive marker whether kugyolja(口訣字) or a jeomto(點吐) in SK. I have a question how the classical chinese passive construction was translated in SK. And if it was translated into some constructions, what is their characteristics?

The Classical Chinese has several passive constructions i.e. yú (于) or yú(於), wéi(爲), jiàn(見), méng(蒙), and suǒ(所) passive constructions. Among them, however, so called *wéi...suǒ...*(爲...所...) constructions are generally and productively used in SK. Therefore they are good examples for us to investigate the passive expressions in SK because it has a clear passive markers i.e. its passive agent and original verb. To say, in a *wéi...suǒ...*(爲...所...) constructions, we can easily discern the passive agent marked by of wéi(爲), passive verb phrase including 'suǒ(所)'.

So called *wéi...suǒ...*(爲...所...) constructions is translated into two types in SK. One type is *ildalha*(ㅣㄹ ㅏㄹㅎᄋᆞ) and the other type *wéigi*(爲ㅎᆞ) construction. The former is used in so called

Avataṃsaka series including Tafangkuangfohuayenchingsu(大方廣佛華嚴經疏) vol. 35th. and Buddhāvataṃsaka-mahāvaipulya-sūtra(大方廣佛華嚴經) vol. 14th. as Jato-Seokdok-Kugyeol(字吐釋讀口訣) data and, Buddhāvataṃsaka-mahāvaipulya-sūtra(大方廣佛華嚴經) vol. 20th. translated by Śikṣānanda(實叉難陀) and vol. 6th, 22th, 36th, and 57th and Buddhāvataṃsaka-mahāvaipulya-sūtra(大方廣佛華嚴經) translated by Buddhabhadra(佛馱跋陀羅) vol 20th as Jeomto-Seokdok-Kugyeol(點吐釋讀口訣) data. The latter is used in so called Yogacārabūṃmi series including Hopuchinkuangming-ching(合部金光明經) vol. 3rd. and Yogacārabūṃmi(瑜伽師地論) vol. 20th as Jato-Seokdok-Kugyeol data and Yogacārabūṃmi(瑜伽師地論) vol. 5th and 8th as Jeomto- Seokdok-Kugyeol(點吐釋讀口訣) data.

But the *ildalha*(ㅣㄹㅏㄹㅎㅏ) construction in Avataṃsaka Series is not only used to be translated as passive construction but also as lexical verb doeda 'to become'. This construction is, therefore, not typical grammatical passive construction. But the aspect of the *wéigi*(爲ㅎ) construction is very different from the *ildalha*(ㅣㄹㅏㄹㅎㅏ) constructions. It is because the former are used only to translate the *wéi...suŏ...*(爲...所...) constructions.

We can, however, reach a consequence in which the *wéigi*(爲ㅎ) constructions is not a typical passive construction in Goryo Age Korean. If it is a typical passive, it should be in Yogacārabūṃmi series and needless to say in Avataṃsaka series

We have another type of construction, i.e. *wéiili*(爲ㅡㅣ) which seems to have a relation to passive meaning.

Regretfully, we have only three examples of it and they were

used in a fairly limited context, i.e. 障导 meaning obstacle as their governed object argument. And we can translate the '障导ㄴ 爲ㅡㅣ' into 'to become an obstacle', which is not a passive construction.

In conclusion, there are no genuine passive constructions as a grammatical construction in Goryeo Age Korean.

*Key words: *wéi...suǒ* construction, *-ildalha-* construction, *wéigi* construction, *wéiili* construction, prototypical passive construction